

나주호 둘레길 4년만에 전체 구간 개통

1~2구간 총 8km 명품 코스 완공
2021년부터 110억원 투입 조성
2구간 강화유리 인도교 ‘햇 스폿’

호남 최대의 내륙 인공호수 나주호를 품은 ‘나주호 둘레길’이 지난 17일 공식 개통돼 시민과 여행자에게 품격 있는 치유와 쉼의 공간을 선사하고 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비치는 하늘과 시나브로 가을 빛으로 물들어 가는 숲 등 자연이 하모니를 이루는 둘레길은 그 자체로 ‘자연 미술관’에 비유해도 손색이 없어서다.

나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총 110억원을 들여 4년에 걸쳐 조성한 나주호 둘레길은 ‘1구간(4.4km)-한전KPS 인제개발원~녹야원’, ‘2구간(3.6km)-충흥리조트~다도광업소’ 등 전체 8km로 완성됐다.

코코넛 껍질 섬유로 만든 부드러운 야자매트가 깔린 인도, 오르락내리락 재미가 있는 나무 테크길, 곳곳에 설치된 벤치와 쉼터, 그리고 시원한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까지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가 인상적이다. 특히 시선을 사로잡는 건 2구간의 인도교다. 충흥리조트에서 나주호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체험 요소를 더한 ‘감성 스폿’이다.

다리 중간중간 바닥에 강화유리를 설치해 물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을 안겨주고, 두 곳의 전망대



4년여 만에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 나주호 둘레길 모습. <나주시 제공>

에선 탁 트인 호수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명상을 즐기는 여행객이라면 1구간에 위치한 녹야원(鹿野園) 방문을 추천한다. 나주 다도면 마산리에 위치한 녹야원(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백양사 말사)은 효공(원진)스님이 덕룡산 자락에 창건한 수행 기도 도량이다.

이처럼 나주호 둘레길은 단순한 걷기 이상을 선사한다.

이번 둘레길 개통을 계기로 나주시는 힐링형 관광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산강축제에 52만명이 찾은 ‘영산강정원’을 비롯해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 영산강 300리 자전거길, 공산면 남도의병역사공원, 금천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 ‘500만 관광도시 나주’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나주호 둘레길은 지역을 대표하는 힐링 명소이자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단절 구간 연결과 특산물 판매장, 출렁다리 설치 등 후속 정비를 통해 보석 같은 나주의 대표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호우 피해 복구 1230억원 확보

기후위기 대응 복구 체계 구축

담양군이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전남 최대 규모인 1230억원의 복구비를 확보해 생계 회복 지원과 함께 하천·도로·농업 기반시설 전면 재설계에 착수했다.

담양군은 기록적인 폭우로 공공시설 223억원, 사유시설 186억원 등 총 409억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재난관리시스템(MDMS) 신속 입력과 중앙부처 사전 조사 대응을 통해 대규모 복구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복구 재원은 공공시설 1167억원, 사유시설 63억원이며, 공공시설 복구비는 담양군 관리구간 245개소에 745억원, 전남도 관리구간 6개소 412억원, 군부대 4개소에 10억원이 배정됐다. 현재까지 216억원(17.5%)의 집행이 시작됐으며, 국비 84억원은 도로·소하천 등 기반시설 복구에, 특별교부세 75억원은 긴급 복구 구간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3억원 중 57억원이 이미 3425세대에 지급돼 주택, 상가, 농작물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군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이번 복구 목표를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항구적 복원’으로 설정하고, 재해예방 중심의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북 침수지역은 하천 단면을 확장하고 제방 높이를 상향 조정해 우수 용량을 1.5배 이상 늘린다.

주요 하천에는 침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옹벽과 생태블록 사면을 병행 설치할 계획이다. 또 농업용수로 배수관 직경 확장과 펌프장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요 배수펌프장과 양수장에는 정전 시에도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전원 이중화 설계를 적용한다.

군은 이번 복구 과정을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담양형 재난관리 표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경보체계, 마을단위 자율방재단 지원, 주민 재난안전교육을 결합해 ‘사전 예측·즉시 대응·사후 개선’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복구는 피해 회복을 넘어, 재난대응체계를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이다”라며 “마을 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확보한 1230억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재난에 강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군, 민관학 협력 곤충산업·생태교육 추진

함평교육지원청 등과 협약

함평군이 곤충산업과 생태교육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최근 전남도함평교육지원청 함평나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군 곤충산업 활성화 및 생태교육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초등학교 3학년 과학 교과 과정 중 ‘생물의 한살이’ 단원과 연계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고 능동적인 탐구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군의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은 ▲농가의 나비 사육기술 지원(민간) ▲행정·제도적 지원(군)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교육기관) 등 민·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생태교육과 곤충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함평나비영농조합법인은 학생들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나비 한살이 관찰 세트’ 100개를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기부하기로 약속해 상생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군과 교육지원청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태교육 확대, 곤충체험 프로그램 운영, 산업 연계형 교육 모델 개발 등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정애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직접 생명을 키우고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협약은 생태교육과 곤충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민·관·학이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교육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심폐소생술 체험관’ 개소 장성군 사전예약제 교육

장성군이 최근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문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심심심장성군의회 의장, 군의원, 유관기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심폐소생술 체험관’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 공간이다. 성인·영아용 심폐소생술(CPR) 실습 마네킹,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갖추고 있다.

교육은 매주 월·수·금요일에 사전에 예약제로 운영되며 장성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약 전화는 장성군보건소 의약관리팀(061-390-7103)으로 하면 된다.

개관식에선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이목을 끌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 샌드아트.

강진군, 농촌 학교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5개교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강진군이 농촌지역 아이들을 위한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 ‘놀GO! 뛰GO!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를 운영했다.

강진군은 지난 15일과 17일 각각 칠량초, 신전초에서 첫 행사를 진행했으며 학생들의 일상 속 놀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칠량초, 신전초, 마량초, 병영초, 대구중학교 등 5개 학교에서 순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체험, 전통놀이, 목공예, VR 체험, 샌드아트 등 학교별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칠량초에서는 마을활동가·제과제빵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한 진로체험이 열렸고, 신전초에서는 에어바운스와 키링 만들기, 캐리커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군은 이번 팝업놀이터 운영을 통해 면단위 지역 아동에게도 평등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진 강진군 군민행복과장은 “팝업놀이터는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놀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특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일 섭취량 중 총 다량성 함유량: 300mg입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